

##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출애굽기 23:14-33)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인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조건을 두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다. 내 말을 청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다. 아주 간단하다.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우상숭배는 당연히 하면 안된다. 이것을 지키면 오늘 내가 기록한 모든 축복을 너의 인생에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 자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참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한가지를 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우리는 이 한가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한가지가 있는데 구원 받았다. 그래서 이 한가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냥 믿고만 있지 말고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대부분의 전세계의 성도들이 그냥 믿고 그것으로 끝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의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그 언약이 역사한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물러서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다. 결국 정복을 하고 증인이 된다. 놀라운 일이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수많은 예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도 가끔 보면 진짜 있다. 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한가지이다. 이것을 누려야 한다. 누릴려면 잡아야 한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믿고 끝나는게 아니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게 답이다. 이 한가지를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언약으로 잡는 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고백이 하고 싶어진다.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자꾸 언약으로 잡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어진다. 이게 자동이다. 그러면 이 고백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누림이 되는 것이다. 누림이 어떻게 오는가? 믿어지니까 누림이 온다. 잘 안믿어져도 언약을 잡는다는 소리를 계속 해보라. 믿어지는 날이 온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이것 하나 뿐이다.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자꾸만 기도해서 근본 이것을 놓치면 이것이 종교생활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부터 새로 한번더 결심하라.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언약을 잡는 예배는 흑암세력을 쫓는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러면 이걸 해야 한다. 계속하면 누림과 정복, 정복했는데 증인 안될사람이 아무도 없다. 역사 일어나면 당연히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날 되어서 되게 되어 있다. 언약 잡는 일을 지속하고 있으면. 왜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하신다. 내 스스로는 못한다. 누림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누림의 깊이에 따라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달라진다. 왜 이런가?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기준은 그리스도이다. 영원한 기준이고 완전한 기준이고 다른 기준은 없다. 이 누림의 기준에 따라서 개인의 영적 세계가 달라진다. 이게 달라지면 누림이 달라진다.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안되지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안된다. 이 누림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참 놀랍고 간단하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안하고 뭔가 다른 것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온다. 하루종일 다른데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면 그건 괜찮은 사람이다. 온종일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바란다. 그걸 보고 24시라고 한다. 이 누림의 깊이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깊이만큼 증인된다.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7명이 여기에 대한 좋은 증인이다. 한사람도 예외없이 다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언약을 잡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으로 잡아라. 잘 안될수 있다. 계속하면 반드시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한다. 다른거 하면 안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

고 그 안에 기도응답이 있다는 것을 언약으로 잡으라. 당연히 사단이 무너지는 승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잡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만 사는데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으면 된다. 오늘도 이 언약을 잡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실줄 믿는다. 믿어야 한다. 왜 그런가? 수많은 증거가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위에도 있다. 내 과거를 돌아봐도 있다. 그럼 당연히 오늘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도 일어날줄 믿는다. 교회는 237의 문도 열릴 것이다. 다민족 렘넌트의 문도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것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언약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다민족 나라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미국교회는 상당히 많이 변질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이 나라가 축복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살러 많이 온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들어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참된 복음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그 나라를 죽일것인지 살릴것인지 결정하신다. 혹시 미국 현지인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도 들어온 이민교회가 살아 있으면 미국교회가 살게 된다. 우리같이 규모는 작아도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치있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히스패닉교회를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천주교 배경은 있어도 하나님만 본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화가 상당히 통한다. 그래서 히스패닉교회에 연결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히스패닉 교회 숫자가 늘어난다. 지금 남미에서 못올라오게 막고 그러는데, 나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와가지고 일단 배경이 천주교라도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 넣으면 된다. 언약 잡은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흑암세력 쫓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심어라. 언약이다.

### 1.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는 거기 들어가면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히려 우상을 다 깨버리고 나를 섬겨라. 니가 만일 내 말을 따르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약잡고 하루 한번씩 계속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중에 반드시 나타날줄 믿는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참으로 기가막히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후에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 하는 중에 나왔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14절에 너는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 너는 세 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15절에 무교절을 이야기 했다. 내가 너에게 말한대로 첫째달에 일주일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였다.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왜 지켜야 하면 그날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어. 노예에서, 사단에서 나왔어. 그날. 그러니까 잊으면 안되지. 그리고 너는 빈손으로 그날 나오지 말라. 왜? 이 구원에 대해서 너는 감사해라. 이 말이다. 16절은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 했다. 맥추절은 밭에서 곡식을 거둔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걷이를 해서 창고에 들이는 날이다. 구원을 의미한다. 3절기는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무교절은 유월절로부터 일주일이다. 유월절은 언약의 피로 해방된 날이다. 그 때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다. 그 날로부터 일주일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첫 이삭,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이다.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일년에 3번씩 내게 오라고 했다. 이것이 세절기를 말한다. 유월절(맥추절), 맥추절, 수장절이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했다. 유교병은 세상의 것, 인간의 것이 섞인 것을 의미한다. 그것하고 제물을 같이 드리면 안된다.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이긴하지만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양을 잡아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제물의 일부이고 예수님은 번제를 상징한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양 먹을때에도 그 다음날 뒸다 다시 먹고 하지 말라고 했다. 19절에는 토지 소산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염소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새끼를 어미 젖

로 삶아서 먹으면 되겠는가? 이런 악한짓은 하면 안된다. 이것은 창조 질서로 봤을때도 잔인한 짓이다. 또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면 밭에 곡식이 많이 난다고 믿고 많이 했다고 한다. 그건 방법이고 종교니까, 풍년은 나에게 있지 거기에 있지 않아. 그리고 20절 후에 수많은 축복을 적어놓았다. 20절에 사자를 보내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것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을 24절에 이야기 하셨다. 어떻게 하면 니가 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이고, 니가 약속한 것과 꿈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인가를 22절에 이야기 했다. 니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니 모든 원수에게 원수가 될 것이다. 니가 내가 말한 것을 따르면, 청중은 따른다는 말이다. 듣고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될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니 대적의 대적이 될것이라고 하셨다. 놀라운 일이다. 내 원수의 원수가 되면 이것은 끝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것으로 끝이다. 당시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었다. 모든 것을 따라야 하는가? 쉽지 않다. 물론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것이 율법의 모든 조항의 이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나안 했으니까 너 가나안 들어가. 그리고 거기 있는 우상 다 깨버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사자가 너 앞서 가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깨뜨릴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깨드리라고 했다. 그리고 25절에 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다. 그러면 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것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내가 네 원수의 원수, 대적의 대적이 될것이니까, 니가 할 일은 대적이 되는게 아니고 내 말을 지켜라. 이것이 니가 할 일이야. 니가 직접 원수를 갚으로 갈거냐? 아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라. 간단하다. 그리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니 인생에 양식과 물을 축복할 것이다. 거기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양식도 당연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 할 것이다. 너 이렇게 살면 병걸리지 않아. 그리고 26절에 니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인구 중요하다. 지금도 중요하다. 인구가 계속 내려가면 경제가 다 깨져버린다. 한국의 제일 근본 걱정중에 하나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좋은게 남쪽에서 계속 올라온다. 스페니시 사람들이 감사하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예사로 4-5명이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우리는 둘만 낳아도 힘들어한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전쟁이 붙어도 기술전쟁이고 경제전쟁이다. 그러나 그때는 머리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이것은 내가 너의 명대로 살고 죽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27-28절에는 내가 네 위엄과 왕벌을 보내서, 이것은 천사, 하늘군대와 같은 뜻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의 원수들을 쳐서 쫓아낼 것이다. 29절,30절에는 이들을 너무 빨리 쫓아내면 땅이 오히려 해칠테니까 일년만에 하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는 것이다. 니가 번성해서 니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니가 힘을 얻을때까지 차츰차츰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31절에는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주겠다고 하셨다. 홍해에서 블레셋까지, 광야에서 유브라데스까지. 그러면 그 땅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의 신들과 언약 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과도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다. 33절에 그들이 너의 땅에서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봐 겁난다는 것이다. 니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울무가 될 것이라고 마지막에 말씀 하셨다. 우상숭배하면 인생의 울무가 된다. 가장 이 시대의 가장 격렬하게 우상숭배하는 팀들이 무당들이다. 미국에는 조금더 밖으로 표시 안나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이 너의 인생의 울무가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 수많은 구체적인 약속을 아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조건 두가지 이야기 하셨다. 너는 내 말을 따르고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이것만 지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수 있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말씀 따라가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수많은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일

일이 말할 수가 없다. 큰 것 나오는 것이다. 우리 우상숭배 안해야 한다. 너무나 간단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 세계복음화 해야 한다. 우상따라가면 안된다. 그리스도 두려워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대단한 무엇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복음화 출서야 하고 우상숭배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경우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나안땅 안 간다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갈수도 없고 안가겠다고 거부한 사람 다 죽었다. 이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의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안해요. 나.. 그러면 다 죽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세계 복음화이다. 부활메세지 4개이다. 그걸 요약하면 237, 치유, 서밋이고 그걸 더 요약한 것이 전도와 선교이다. 그런데 난 안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안된다.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였다. 어떻게 우상숭배를 안하는가? 우상에게 직접 절은 안하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뭔가 우상숭배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을 보면 고라같은 사람은 당을 지었다. 사람들을 250명 정도 모아서 하나님께 대들었다.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또 다른 기억에 보면 하나님 대적하다가 수만명 죽은 기록도 있다. 25절에 너희는 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그러지 말고 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였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우상숭배 당연히 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게 잘 안되면 영적문제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내가 그렇게 가야 한다. 내가 무슨 일이 바쁘거나 생각이 바쁘면 그것도 영적문제이다. 왜 그러냐하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 마음은 이것을 따라갈수 있다. 이 영적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 누림으로 완전 치유되고 언약되기를 축원한다. 답이 되어야 한다.

## 2. 사명

사명과 응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응답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명과 응답은 아주 관계가 많이 있다. 응답과 가장 근본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사명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킬일이 있을 때 자기 종을 불렀다. 아무 시킬일이 없을 때 종을 부를 이유가 없다. 시킬 일이 있을 때 불렀다. 그래서 사명이다. 요셉을 부르실 때 애굽을 복음화 하기 바랬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살리기 원했다. 애굽의 왕과 관리들, 전국에 있는 관리들 전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요셉의 하나님을 알게되었을 것이다. 시킬 일이 있으니까 부른 것이다. 사명도 없는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다. 모세 부른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애굽을 깨고 가나안 들어가는 일이 있었기에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이다. 부르는 그날 바로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많은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도 이 원리에는 예외가 없다. 아무 일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킬일 일도 분명히 있다. 이것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바울이 받은 말씀도 그 태두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메세지이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이유는 없다. 물론 능력을 받기 위해 역지로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이 부활메세지 4가지를 요약한 것이 237, 치유, 서밋이다. 한번더 요약하면 전도와 선교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까지 가시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가야 한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다. 내가 니 원수의 원수가 되면 다 된거 아니냐. 내가 니 양식을 축복하고 물을 축복할것이고 병을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다. 집에 가서 기도하고 조용하게 읽어보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줄 믿는다.